

1. 멕시코 2009: 위기, 마약거래, 중세적 우파, 봉건적 PRI의 복귀, 세계화된 국민

까를로스 몬시바이스*

멕시코는 조직범죄 세력에 의해 퇴로가 막힌 국가이며, 정치인과 정당과 위기의 경계를 불신하는 사회와 더불어 마약거래로 궁지에 몰려있고, 일상적인 살인으로 대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이다. 불평등과 차별 위에 세워진 국가인 멕시코에서는 근대적이고 민주적인 충동과 봉건주의, 마초주의, 인종주의라는 악습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은 원주민과 여성이다. 이 글은 수치스러운 선거를 통해 탄생한 정부가 중세적인 가치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정확히 바티칸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risis/ Narcotráfico/ Violencia/ Cultura/ Derecha/ México;
위기/ 마약거래/ 폭력/ 문화/ 우파/ 멕시코]

* 지식인, 수필가, 멕시코 연대기 작가. 그의 저서로는 *Días de guardar*(1970), *Amor Perdido*(1977), *Entrada libre. Crónicas de una sociedad que se organiza*(1987), *Los rituales del caos*(1995)가 있다. 그는 반세기 동안 라틴아메리카인의 의식과 감수성 연구에 매진했다. *Aires de familia. Cultura y sociedad en América Latina*(2000)라는 책으로 Premio Nacional de Periodismo와 Premio Xavier Villaurrutia와 28회 Premio Anagrama de Ensayo를 수상했다.

I

민주주의로의 끝도 없는 이행이 2009년 지금 심각하게 의문시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정당을 불신하고, 통치를 거부하며, 매일 박탈감을 느낀다. 대통령 펠리페 깔데론(Felipe Calderón)은 문제가 많은 승리를 이룩한 이후에 필요한 신뢰를 얻지 못했으며, 전통적인 우파의 지지 중 중요한 부분까지 상실했다. 그의 선거운동을 지지한 아주 명성 있는 보수적인 기업가 로렌소 세르비뜨헤(Lorenzo Servitje)는 이제 깔데론의 6년 임기의 종말에 대해서 말한다. “펠리페 깔데론은 정당성 결여, 통치 불가능성, 내각을 비롯한 주요 공직에 측근이나 무능력자들을 기용하는 고집 때문에 임기를 채우기 힘들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4년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느냐가 아니라, 흔히 언급되고 있는 사회해체이다. 문자 그대로 굶주린 이들이 옥수수를 얻으려고 기차를 공격하고, 도시의 거리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 혹은 지하경제를 장악한 마피아가 기회를 주기를 기대하며 서성거리고 있다. 그리고 누에보레온 주정부는 경제 상황이나 군의 거리 통제에 항의하는 이들이 마약업자들의 돈을 먹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각 정당에서는 이념 논쟁이나 비판적 시각의 징후가 모두 사라지고 있다. 국민행동당(PAN)은 극단적인 보수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있다. 권좌로 복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제도혁명당(PRI)은 ‘불건적’이라고 할 만큼 이미 부족 연맹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혁명당(PRD)은 지도부 상당수가 아주 확실하게 타락해서 좌파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좌파 사회세력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자신들을 PRD와 동일시하지 않으며(아마도 PRD 후보들 중 누군가에게 표를 던지고 말겠지만), 정치, 생태, 문화, 사회, 생명윤리 등의 영역에서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생존 우선의 시대에도 이념(idea)은 여전히 중요하다. 고갈되고, 효율성을 상실하고, 희석되고, 혼탁해졌다 해도 진정성 있는 이념은 동원과 저항을 이끌어낸다. 시민사회, 관용, 민주주의 이행, 통합의 정치 기획, 다양성, 다원성 같은 화두에 담긴 이념들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또 이들이 일반적으로 상투어나 빈약한 추상적 개념이 된다 해도 그 광범위한 파급력을 보아야 한다. 그 과정은 전통적인 정치 형태를 초월하며, 오늘날 너무나 그 가치를 상실한 유일사상(Pensamiento Único)의 대안으로 이념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I

2009년 2월 13일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PRI의 돔 건물 앞에 있는 로스삐노스 대통령 궁에서 역설한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범죄와의]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음번에 대통령 궁에 오시는 분들은 마약업자 대통령과 마주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경제부 장관 헤라르도 루이스 마페오스도 같은 생각을 말했다. “조직범죄와의 전쟁에서 실패하면, 공화국의 다음 대통령은 마약이 될 것입니다. 마약밀매에 대한 정부의 공격 논리는 마약이 이미 국가 내의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쉬운 일은 많은 사람의 말마따나 그냥 내버려두는 일일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공화국의 다음 대통령은 마약업자일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조직범죄를 상대로 승리하고 있다는 멕시코 정부의 확신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전직 수장이었던 배리 맥카프리는 다음과 같이 장담한다. “멕시코는 낭떠러지 옆에 있으며, 앞으로 10년 후면 마약국가로 바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2008년 12월 29일) 다른 사람들을 질책하기 위해 펠리페 깔데론은 또 다른 묵시록적 예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국민으로서 그러한 야만성이 멕시코 사회에 침투하여 거리에 정착하고 당국에 침투하는 것을 어떻게 묵인할 수 있었는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2009년 2월 15일)

마약거래 집단들은 자체적으로 군대, 사설 경찰, 정보팀, 시장(市場)을 연구하는 재정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장관 두 명이(후안 까밀로 모우리노와 페르난도 고메스 몬뜨)이 인정하고 있듯이, 이미 그들은 영토와 도시들을 가지고 있다. 지원이나 협박, 혹은 설득을 통해서 지방의 상당수 주지사들을 지배하고, 주의회(diputaciones)와 지방 행정기관 입 후보자들에게 자금을 대고, 기업가와 은행가들과 결탁하고, 엄청난 규모의 돈세탁(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거의 합법화된 활동이다)을 하고, 미국에서 일급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다양한 양상으로 국가에 도전하고 있으며, 사법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의 기능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호세 힐 올모스(José Gil Olmos)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마약거래 집단은 로스 세따스(los Zetas), 까이빌레스(Kaibiles), 마라스 살바트루час(maras salvatruchas)로 구성된 고유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따스는 탈영한 뒤 골포 카르텔(Cartel del Golfo) 조직으로 간 멕시코 군인들로 구

성되어 있고, 까이빌레스와 마라스 살바뜨루차스의 일부 구성원도 마찬가지로 각각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의 전직 군인이며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들을 위해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과 2월의 수치들: 거의 1,0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마약거래와 관련해 암살되고 죽었지만,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찰 간부, 시장, 사법부 당국자, 심지어 간꾼에서는 마약과의 전쟁 임무를 맡고 있는 장성까지를 상대로 테러가 벌어지고 대부분 성공한다. 폭력이 전국적으로, 특히 미국과의 국경지대로 확산된다. ‘자유시간’을 활용한 마약밀매자들에 의해 혹은 총기가 넘쳐나는 환경에 영향을 받은 범죄자들에 의해 납치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후아레스, 띠후아나, 레이노사, 마따모로스, 누에보라레도 같은 도시에서는 폭력이 난무하는 분위기와 납치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고, 할 수 있으면 미국의 국경지대로 이동했다. 상당수 도시에서는 레스토랑과 디스코텍이 범죄의 소굴이 됨으로써 밤 생활이 사라져버렸다.

미국 당국은 멕시코의 북부 국경지대를 ‘매우 위험한 지대’로 선포했다. 2년 동안 거의 1,000명의 군인과 경찰들이 암살되었으며, 카르텔과 치안당국 간 충돌이 증가했다. 마약업자들이 치안당국에 침투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지적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이를 인정했다.

안전 보장을 위한 군의 거리 통제를 미더워하지 못하고, 늘어나는 강간과 강도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고, 군경대가 야기한 손상에 불쾌해 한다. 치와와 주지사는 자신의 주에서 군대가 철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연

방정부가 거부했다. 카르텔 간의 전쟁과 치안당국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은 인간적인 삶에 주어진 최소한의 가치마저도 떨어뜨리고 말았다. 2년 동안 얼마나 죽었는가? 그 수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많은 살인사건이 파악되지 않고 있고, 기가 막힐 정도로 많은 수치에(하루에 42명, 23명 혹은 15명의 희생자) 사회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직범죄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백만? 이백만?

떼오의 뽀솔레로라고⁷⁰⁾ 불리는 단 한 명의 범죄자가 자기가 속한 카르텔의 적들의 시체 300구를 산(酸)으로 용해시키고 1구당 6,000에서 10,000 페소를 받았다(그 지역의 뽀솔레로는 그가 유일한 인물이 아니다). 적을 고문한 후에 산 채로 목을 자르거나 사체의 목을 자르는 일도 일반적인 현상인데, 죽은 사람들 중에는 경찰과 군인도 있다. 마약 거래자들이 적을 찾으러 축제 현장에 나타나, 그 김에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살해한다. 여성, 아이, 청소년도 살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마약 거래자들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만일 내가 내일 살해된다면, 오늘 나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것이다.’ 또 다른 전제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쯤 되면 죽이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매일반이다. 무기의 발전은 동물의 멸종을 추구하던 멍청한 사냥 윤리에서 비롯되었고, 그 후 사람도 문자 그대로 ‘표적’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발달한 무기일수록 더 큰 살해

70) [역주] ‘떼오’(El Teo)는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보스 떼오도로 가르시아 시멘탈(Teodoro García Simental)의 별명이며, ‘뽀솔레로’(pozolero)는 직역하자면 무덤을 잘 파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의무가 수반되는 법이다.

카르텔들은 협박과 매수 능력으로 -고전적인 ‘뇌물 아니면 총알’(plata o plomo)을 통해- 판사, 경찰 간부, 검찰, 대법관, 기업가, 군 고위층에게 접근했고, 어쩌면 성직자들에게도 손을 뻗었을 것이다. 덕분에 점점 더 처벌을 면제받게 되었다. 마약업자들은 그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 즉 20세에서 35세 사이에 죽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일생 감옥에서 지내는 그러한 운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하다. 자신만은 예외라고 생각하고, 권력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죄야 따라하기)한테 있는 것이지 하고 만다. 그런데도 멕시코가 타락한 국가가 아니란 말인가?

III

신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했다면, 우리가 그들과 같은 동네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펠리페 깔데론은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경제’ 운운하지만 이와 관련된 뉴스들은 다음과 같다. 환율은 1달러 당 15.35페소이고(2009년 2월 28일), 실업과 불완전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사회적 유동성이 떨어지고, 정규직 창출이 얼어붙고, 증권거래소가 위험지역이 되었으며, 1982년 이래 최저 임금은 구매력의 78%를, 평균임금은 63%를 상실했고, 미국과 멕시코 간의 기본임금 격차는 15 : 1이며, 인구의 0.18%가 국부의 1/3을 거머쥐고 있다. 이밖에도 부정적인 자료들은 끝이 없다.

최근 반세기 동안 어느 누구도 멕시코를 ‘불평등에 기초한 나라’라고 묘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1976년 12월 1일에 호세

71) [역주] 따리하(Tarija)는 볼리비아의 도시로 코카인 제조로 유명하다.

로페스 뽀르띠요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외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라는 식의 감상적인 위대한 연설과 같은 미온적인 평등주의적 조치들조차 이제는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인구의 70%에 가까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갚을 수 없는 역사적 부채가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난 뒤에는 냉혹함과 무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인종주의, 성차별, 불관용, 동성애, 종교적 불관용 때문에 소외된 소수자의 권리만 아주 느린 속도로 고려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아주 최근까지 다양성에 대한 인정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 PRI당의 미겔 데라 마드리드의 대선 선거운동이 있었던 1982년에야 사회과학자들에 대한 예외의 표시로 다원적(plural) 조건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멕시코는 동질적인 단일체로 규정되었다. 즉, 축제, 순례, 인구조사 때 보면 가톨릭 국가이며, “아직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며,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심히 메스티소적이고 이성애적인 사회였다. 합법적인 대안을 생각하지 못했다. 역사적인 성과(19세기 자유주의적 개혁 예찬에 대한 관용, 1917년 헌법의 세속교육과 무상교육, 진전되는 세속화)에도 불구하고, 다원성으로 가는 길은 놀라울 정도로 느리기만 하다.

IV

2006년, 불법정부의 해. 2006년 7월 2일은 우파, 기업가, 가톨릭 고위 성직자, PRI, 전국교원노조(SNTE, 부패와 탄압이 전문인 여성 지도자 엘바 에스페르 고르디요가 이끄는), 민간 전자매체, PRD 후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포폴리즘’에 놀란 중산층의 대대적인 사기행각이 벌어진 날이다.

선거일인 7월 2일은 시민들의 평화적·민주적 결정, 멕시코시티에서 느껴지고 거의 전국적으로 존재했을 환희에 찬 활력, 투표를 통해 국가 중대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두드러졌다. 반면 증오에 찬 반(反) 로페스 오브라도르 선거운동은 인상적일 정도로 비열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PRD와 자신에게 체제불만 표를 몰아달라고 주장했다. 스페인과 미국에서 수입된 몇몇 시장주의자들은,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민중주의적 메시아주의’에 대한 심리분석에 몰두한 논설꾼들과 여론조사꾼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권자들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선량한’ 사람들은 우고 차베스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심지어 소갈로에서 그를 본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 선거운동은 세 가지 목적을 달성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키는 것, 지배계급에게 면책특권을 계속 보장해주는 것, “우리의 집을 빼앗고, 우리 은행계좌가 없어질 것이고, 우리를 약탈할 것이다”라는 식의 박탈에 대한 두려움을 유포시키는 것이었다. 그러한 두려움은 앓을 것이 별로 없거나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침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즉, 잠시 자신들이 ‘부르주아’라고 느끼게 된 소외층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해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스포트, 전자우편, 전화, 소문이 난무했다. 협박, 섬뜩한 예언,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온다!” 따위의 경악스러운 문구를 통해 상대방을 파괴시키려고 했다. 우파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분노를 표방하고, 권력을 무한정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분파들을 얻게 되었다.

증오에 찬 선거운동이 우파 활동의 중심이며,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멕시코에 위협인물이다”라는 구호는 그들의 추잡한 허언증(虛言症)을 잘 드러낸다.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여러 논자들은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멕시코에 위협인물”이라는 우파의 문구에 그를 끝장내려는 의도까지는

없다고 확인한다. 그렇다면 우파는 왜 그 문구를 유지하려고 애썼는가? 왜 그 문구가 PAN의 동원 여부와, 이들을 돕는 미디어 나부랭이의 핵심 축이 되고 있는가?

2006년에는 예언들이 판을 쳤다. 일단의 예언자, 초월적인 지각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로베스 오브라도르의 메타공산주의 정권의 미래를 이야기했다. 자유를 짓밟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치에 대해서, 반지성주의적인 탄압 계획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고 미래를 고발했고, 이미 일어난 일로 간주해 버린 것이다.

여론조사 게임은 환상의 장이다. 여론조사자 그 누구도 자신의 방법론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의 말이나 그의 경쟁자의 말이나 모두 유효하다. 면책특권 체제에 편승한 사람들 모두가 패거리를 이루어 좌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난 역사에 자유주의자들과 혁명세력이 존재했는데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과거에도 보수적인 나라였고, 현재에도 보수적인 나라이며, 다행히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보여주려고 했다. 7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⁷²⁾ 대중매체에서는 증오와 중상모략의 캠페인, 즉 우파의 ‘쿠데타’가 더욱 더 격해졌다.

PRI와 PAN의 동맹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2009년 2월 13일 대통령 궁에서 깔데론은 주지사, 의원, PRI의 지도부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신과 유권자들은 당신들이 결코 또 다시 대통령직을 얻지 못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PRI 의장인 베아뜨리스 빠레데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신은 바라지 않을지 모르지만, 과달루페 성모는 바랄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과달루페 성화 엽서를 나눠주곤 하던 펠리페

72) [역주] 12월 1일은 깔데론의 취임일.

갈데론이 발끈해서 말했다. “성모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마시오.”

V

불평등, 영원한 출발점. 명령에 복종하고, 이를 실행하라. 신념의 독점, 정치권력의 독점, 경제권력의 독점, 행위 허용치의 독점이 일련의 전체적인 의지로 통합되었으니 말이다. 다수자이든 소수자이든 소외되고, 그들의 가혹한 운명이 자연스러운 것 혹은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국민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존엄성 결핍과 짝을 이루는 기회부족의 지옥에 처넣는다. 소외된 여러 공간에 종교적 낙오자, 정치적 낙오자,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아주 특별하게는 원주민이 모여 든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성들의 소외 역시 심각하다. 이들은 서로 많이 다르지만 근본적인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외부로부터 규정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데에 심리적·육체적 비용이 들고, 자신의 고유한 역사를 만들기 어렵고(적대적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원죄’, 즉 표준에 맞지 않는다는 죄가 두고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이다.

VI

후아레스 시의 시체들. 여성 처우와 관련해서, 멕시코가 봉건적 체제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측면은 폭력이다. 폭력은 문명의 발전을 고립시키고 비인간화시키고 제동을 건다. 심리적·육체적 자유를 포위하고, 정신적으로 불구를 만들고, 공포감을 도저히 없애지 못할 정도로 증폭시킨다. 폭력은 완벽한 디스토피아인 것이다. 가부장제의 힘과 역사적 무게, 그로 인한 체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마치 민주화 과정의 거대한 장애

물을 향해 행사한 폭력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다.

여성의 자유의 한계, 그리고 후아레스의 경우 (강조점이나 발현 양상은 아주 다르겠지만) 남성의 자유의 한계는 권력의 역사적 독점과 폭력이 결합된 것이다. 그래서 영주의 초야권(初夜權)을 연상케 하는 강간은 ‘동기유발이 죄’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강간은 또한 여성 보호에 대한 거부감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며, ‘동기유발이 죄’라는 말은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검찰과 경찰과 판사들이 선호하는 도그마였다. 일례로 1998년 과달라하라의 추기경인 후안 산도발 이니게스를 들 수 있다. 그의 하찮은 생각에는 도발적인 옷을 입고 관능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들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아무 일 당하지 않으려면 몸뚱어리는 집에 두고 나와야지”라는 말만 하지 않았을 뿐이다.

폭력의 절정은 1993년 이래 오늘까지 후아레스 시에서 600명 혹은 700명의 젊은 여인들이 살해된 사건이다. 유감스럽게도 PAN과 PRI 행정부들이 이 끔찍한 현상에 개입했다. PAN 소속의 주정부들은 희생자 나무라기에 열을 올렸는데, 1994년에 이미 프란시스코 바리오 주정부의 검사가 죽은 여성들이 “어떤 동기를 제공”했거나 “옷차림이나 삶의 방식이 범죄자들을 자극”했기 때문이라면서 희생자들을 비난했다. 루르테스 뽀르띠요의 다큐멘터리 수작 〈실종된 젊은 여성〉(2000)에서 볼 수 있듯이, 주지사 바리오는 입을 함부로 놀리면서 12세기의 도덕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턱없이 잘못된 이론의 결과는 엄청나다. 여성이라는 죄의 대가는 죽음뿐이다.

후아레스 시의 살인범들은 누구일까? 하나의 집단일까 아니면 역병처럼 번진 연쇄살인범들일까? 멸종 본능이 전염되고 있는 것일까? 결국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범죄의 빈도와 실종과 방법의 유사성이 놀랍다. 마길라의 여성 노동자, 젊은 여성, 그 가족들의 두려움은 익히 알려져 있다. 폭력은 여성을 꼼짝 못하게 만들며, 여성의 이동의 자유를 없애버리고, 여성이 ‘허약한 성’임을 부각시킨다. 또한 여성에 대한 학대의 전통, 물리적 사용, 무기 소유, 범죄적인 여성혐오증을 강화시킨다.

왜 사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미적대고 있을까? 몇 가지 가능한 답을 열거해보겠다.

ㄱ) 후아레스 시가 갖고 있는 국경지대라는 조건이 법이 부재한다는 집단적 상상을 주고 있다. 그런 상상이 생긴 것이 마약거래라는 악몽 탓만은 아니다. 후아레스가, ‘국경을 넘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가 더 중요한 일인 잠정적인 공동체라는 생각 탓이기도 하다.

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죽음은 커다란 사건일 수 있다. 후아레스 연쇄살인에 대한 최종 결론이 1994년에 PRI의 후보였던 루이스 도날도 콜로시오(Luis Donaldo Colosio)의 암살에 대한 최종 결론만큼이나 신통치 않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멕시코 전역에서 무수히 많은 여성이 살해되고 있기 때문에 당국자들은 후아레스의 괴이한 현상을 현실적으로 직시하지 못한다. 대중매체 사회의 통계란 심각한 사건의 초점을 흐리는 경향이 있다. 지구상에 60억이 살고 있는데 그러한 인구 폭발이 모든 것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전통주의자들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처럼 세속적인 교육이 가치를 상대화시켰기 때문에 후아레스 현상이 빚어진 것이 아니다. 세속적인 교육은 문명사회임을 보증해주는 첫 번째 요소이며, 세속적 교육의 상대주의적 시각이 도덕적 가치에 제공하는 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행하는 일들의 총합일 뿐이다. 언제나 인

본주의적 이해가 필요한 법인데 이를 포기하고 통계로만 접근하면, “살리나스 대통령의 재임 기간 6년 동안 살해된 500명의 PRD 당원과 동조자들 그리고 후아레스에서 살해된 여성들”에서 사람과 비극의 관계가 희석된다. 즉, 학대받은 사람들, 그들의 바람, 그들의 행적, 그들의 가족과의 생생한 관계 말이다. 희생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ㄷ) 후아레스 시의 경우 낯선 여성, 말하자면 소외된 여성에 대한 경멸만큼 결정적인 요소는 아무 것도 없다. 1992년 멕시코시티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억하라. 일단의 매춘 여성들이 포주들의 착취와 경찰의 학대를 고발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들은 시의회로 가서 증언하고 가해자들의 이름을 말했다. 몇 주 후에 그들 중 두 여인이 호텔에서 살해되었다. 이 죽음은 그녀들의 고발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고 사체는 무연고자들의 공동 묘로 옮겨졌으니, 이는 이 사건이 대단히 하찮은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후아레스 시에서 살해된 이들은 여성이었을 뿐 아니라, 마길라 노동자들의 비율이 대단히 높았으며, 모두가 가난한 가정 출신들이었다. ‘가난한 여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 등록되지 않은 존재를 뜻한다. 선거 전략에도 거의 고려되지 않아서 ‘아주 조종하기 쉬운’ 존재로 평가된다. 시의회 의원들은 일 년에 이틀 정도 그들을 고려하며, 미혼모가 되는 것은 ‘죄를 짓는 행동’으로 여겨지곤 한다. 펠리빠 깔데론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친척, 고해신부로 이루어진 경우만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2003년에 멕시코의 인구는 공식적으로 1억 6백만 명이었다(아마도 그보다 4백만 명은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조사에서 연방정부는 인

구증가를 감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후아레스 사건에 대한 다른 이야깃거리는 ‘국민, 소수, 다양성, 대안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서 비롯된다. 세계화는 국민국가와 주권을 부차적인 문제로 만들었지만, 사회 자체는 인권을 필두로 한 기본 권리들의 회복을 신장시켰다.

VII

시작부터 쓰여 있었다... 지난 몇 세기동안 결정론적인 사고(思考)가 심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라틴아메리카에 뿌리박힌 편견들의 총체이다. 내가 말하는 결정론은 무엇일까? 대안들의 부식 혹은 파괴 과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전통적인 사고방식(종교적인 보수주의, 계급주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은 결정론에 해당한다. 거기에 권위주의적 권력, 교육, 문화산업의 메커니즘이 덧붙여진다. 당신이 원주민이거나 메스티소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부왕이 통치하던 몇 세기 동안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던 메시지이다). 19세기에는 국가라고도 할 수 없을 혼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공포된 셈이다. 20세기에는 엘리트에 속하지 않거나 유동적인 사회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을 것이라고 선언되었다.

결정론은 원래 사회계급, 성, 피부색과 관련되어 작동한다. 이 요소들의 어떤 변이형도 빈곤 문제는 최소화시키거나 하찮게 여긴다. 빈곤을 그저 인류의 풍토병쯤으로 여기는 것이다. 원주민과 도시빈민에게 복종과 체념을 요구한 부왕령의 사제들 이후로 결정론은 경제적·사회적 한계를 원주민과 도시빈민의 본질적 특징으로 바꾸어버렸다. 불평등이 멕시코 사회 불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항해 싸우는 사람들은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다.

“발버등치지 마시오. 당신은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광고가 될 테니까.” 심리적으로, 텔레비전 권력 앞에 무방비상태로 있는 것은 아마도 최근 가장 심각한 문화적 특징일 것이다. 이에 따른 심각한 문화적 소양 부족에도 불구하고, 운명론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조작이다. 불행히도 그것은 성공했으며 지식인들도 설득 당했다. 텔레비전에 세뇌 당한 사람들은 영원히 그런 상태에 처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의 봉급으로는 텔레비전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두말할 것 없이 경제적 요소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그 결과는 ‘신법’(神法)도 아니며, 사고(思考)의 가치와 문화적 자극을 파괴하지도 못한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VIII

우과. 21세기의 멕시코는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무지 정체 파악이 되지 않는 국가이며, 충실한 상속자이기도 하다. 다원성이 증가하고, 페미니즘이 사회에 침투하며, 전자매체 영역만 빼고 표현의 자유가 기정사실이 되었고, 인권에 대한 인식도 확립되었으며, ‘일탈적인 것’은 종종 ‘소수자’가 되었고, 우과 정치는 이미 몇몇 지역에서는 ‘도덕과 미풍양속 침해’라는 용어가 적용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법 이외에 누가 도덕을 정의하며, 오늘날 무엇이 미풍양속일까?)

또한, 가톨릭 성직자와 우과는 모든 다양성에 대한 고집스런 투쟁에서 육체의 자유(‘도발적인’ 옷을 입는 것을 포함해서)를 계속 비난하고,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며, ‘분과’ 편파 캠페인에 집착하고, ‘사회’(‘규범’ 일탈자를 용납하지 않는)에 대한 정의(定義)를 재확인한다. 에이즈 전염병은 사회적 태도의 가장 좋은 측면과 가장 나쁜 측면을 동시에 드러내준다. 열

심히 에이즈 예방책을 확산시키고 병자를 돕는 이타적 젊은이들(이들 중 상당수는 에이즈 양성반응자와 병자이다)이 두드러져 보이는가하면, 콘돔의 적인 성직자들과 반종교개혁의 잔재가 부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권리는 불평등한 방식으로 향상되었다. 맹목적인 ‘관습’의 무게에 억눌려있는 원주민 여성과, 고용과 성 평등과 마초주의에 대한 비판의 권리를 인식하고 있는 여대생의 상황은 다르다. 그 때문에 젊은 사뿐때까 여성과 서민 동네의 젊은 여성은 소외에 대한 저항에서 차이가 난다. 전자는 전통 의복을 매일 입을 것을 거부하고, 만일 이를 원하면 모범을 보이라고 남성들에게 도전한다. 후자는 강간범들을 체포하여 치안당국에 넘기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문화에서 소외라는 개념은 매일 변하고 있다.

자유주의 개혁과 혁명의 산물로 제정된 법들은 세속화를 촉진시켰다. 하지만 (타자의 권리에 대한 필수불가결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는) 관용의 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선진국 사례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이다. 소설, 시, 영화, (최근에는) 연속극, 연극이 기존의 폭을 넓히고 다양성의 불가피함을 분명하게 해준다. 이리하여, 다들 짐작하겠지만, 지상과 천상의 권력자들만 단일성을 옹호할 뿐이다.

미혼모에 반대하는 깔테론. 제6차 세계가족대회가 개막되었을 때 깔테론 대통령은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의 사고방식에 부합되는 모범적인 텍스트로, 종교계를 다소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으나 세속국가 수반의 메시지로 보기에는 아주 거리가 멀다. 먼저, 정치와 종교 간의 차이, 공화국 대통령의 메시지와 마케팅 담당자의 메시지 간의 차이, 법률가들이 신봉하는 이념과 입헌주의자들이 신봉하는 이념 간의 차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간의 거리가 등한시되었다. 아무도 깔테론 식의 가톨릭을 비

난하지 않는다. 비판받아 마땅한 유일한 사실은, 대단히 전통주의적인 자신의 종교관을 대통령의 이름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이다. 옛 대통령인 아돌포 루이스 꼬르띠네스처럼 부적절한 연사 뒤에, “대통령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네요” 하면서 퇴로를 찾는 시늉을 하지도 않는다. 두말할 것도 없이 깔데론의 참석과 말은 대회의 다음 같은 의미를 지지한 것이었다.

ㄱ) “국가는 절대적인 교육자로 변해, 종교적 신념을 초월하여 이 운동의 이념을 제공하였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심각하게 망가진 것은 영적인 공허함과 가치 부재의 결과인데, 이는 공교육을 가치 빈곤으로 몰아넣은 그릇된 세속국가관 탓이다...”(세속 교육에 반대하는, 멕시코의 대주교구 주간지 《신앙으로부터》의 사실, 『가정교육』).

ㄴ) “자식에 대한 무관심, 가족 해체, 이에 따른 모든 결과. 가족의 가치에 대한 다각적인 공격. 지금 사람들은 보복을 통해 행복해합니다. 우리는 모든 입법자들이 합류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가족이 있고, 우리 또한 가족을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빠, 엄마, 자녀’라는 이상적인 가족 모델을 추구한다면 교회와 교회의 입장을 거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부당하거나 부정확한 평가입니다”(제6차 세계가족대회를 주관한 멕시코시티 보좌주교 호나스 게레로 꼬로나의 이 대회에 대한 언급).

ㄷ) “가족은 인간의 본성과 자연권에서 나온 유일한 것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명칭들은 우리 시대의 인위적인 창조물일 뿐입니다.”(바티칸 국무원장 타르치시오 베르토네가 제6차 세계가족대회에서 대독한 베네딕토 16세의 메시지)

대회 분위기는 바로 이러했고, 바티간의 의도와 율법을 감안하면 전혀 이상할 것 없다. 다시 말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펠리페 깔데론이 대회 정신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공감 여부를 떠나 대통령 직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기 견해를 덧붙인다는 점이다. 핵심적인 주장들 중 하나를 보자.

이러한 현상은 현실이며,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반드시 ‘가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 우리는 이미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어머니와 자식으로만 이루어진 가정에 태어나거나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멕시코에서는 5백만 가구가 넘는 가정을 어머니, 즉 여성이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민법에 따라 이혼이 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 가끔은 새로운 가족단위, 즉 가족의 재구성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설교(나는 예의상 감히 ‘연설’이라고 부르지 못하겠다)에서 깔데론은 미혼모와 이혼이 악을 조장하고 있다고, 그것도 대규모로 조장한다고 비난한다. 이혼과 아버지 성이 없는 아이들이 판도라 상자의 밑바닥에 있는 듯하다. 돈 펠리페는 멈추지 않는다. 신이 결합시킨 가족을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에 그치지 않고, 가정을 갖지 않은 이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 국가의 지원이라는 명예로운 규범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이들까지 서슴없이 단죄한다. 공식석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적어도 홀과 식당에서는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과 공포와 범죄와 증오를 조장하는 이들이 증가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현상은 대체로 가족의 해체와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범죄 집단들

간의 싸움으로 죽는 사람들, 따라서 사회와 대중매체의 주목을 끄는 사람들 대다수는 가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젊은이들입니다. 가족의 가치뿐 아니라 가족 자체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성장한 청소년과 젊은이들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무엇보다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통계 자료가 없고, 무연고자들의 공동 묘에 대해서는 다들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라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깔데론의 말과는 정반대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마약거래업자들의 지도부는 기본세포(가정)를 열렬하게 숭배한다. 아레야노 펠릭스 가문, 벨뜨란 레이바 가문, 까로 긴 때로 가문 등이 존재한다. 이 가문들은 언론매체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이름들이며, 범죄가 일어난 마을마다 일차적인 조직은 가족단위라는 사실이 입증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이 미리 알려주었어야 했을까? “나는 아버지로서(혹은 맏형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리려고 식구를 불러 모았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우리는 화목하지 못해 풍비박산이 난 가정 출신인 것처럼 제각각 행동할 것이다. 우리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도 알지만 ‘가족’이라는 것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그렇게 할 것이다. 만민의 공동재산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다.”

돈세탁업자를 비롯해 마약업계의 존중받는 회원들도 두말할 나위 없다. 그들 모두 단란한 가정을 지니고 있으며, 신앙을 지키는 집단에 속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다.

후견인 국가가 고아를 양산하다. 깔데론 대통령은 배제에 대한 자신의 계획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견실한 가족에 속하거나 이를 이룬 행운을 지닌 우리는 연대할 의무, 우리에게 힘과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가치들을 전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사회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물론 국가를 통해 가족적인 삶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이들이 지원, 보상 받을 수 있을 방법을 모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말한 그대로이다. 즉, 삶이 제공한 안전망, 특히 신이 명령한 바대로 태어났기에 획득한 안전망인 견실한 가족을 통해 우리에게 힘과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가치들을 전수해야만 한다. 깔테론은 말한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또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정을 얻기 위해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연대와 지원에 의거하여, 점점 더 심화되고 튼튼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

깔테론은 다시 한 번 되도록 많은 이론을 전개한 것이다. 그는 단 한 가지 형태의 가족, 단 한 가지 형태의 교육만 인정하고 있다. 또 일련의 가치들만 인정하면서 그 가치가 무엇인지는 설명조차 하지 않는다. 마치 인간의 유전자 지도나 기본세포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식이다. 깔테론의 이런 태도가 어디로 귀결되겠는가? 우선은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확대시키고자 할 것이다. “감히 말하건대 사회 자체만이 그들의 유일한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은 가족이 사회의 기본세포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국가, 당신의 벽장에도 국가, 당신의 인성 함양에도 국가가 개입하고, 운이 좋으면 당신의 가족도 국가가 결정할 판이다. 유모 같은 국가, 할머니 같은 국가, 수호천사 같은 국가. 아! 요람국가여, 할 수도 없고 할 줄도 모르겠지만, 제발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시게나. 공공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국가경제를 보호하지도 않으며, 과두지배 집단에게만 무조건적으로 봉사하는 국가이지만, 적어도 뜻은 숭고하여 가족의 존재를 보호대상으로는 인식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가!

깔테론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래서 사회조직망 쇄신, 조기 가치교육, 가족 강화, 가족구성원들끼리의 결속, 가족들끼리의 결속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좀 더 안전한 멕시코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약중독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강화하는 것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내가 깔테론 대통령의 말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틀림없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내 직관에는, 내 추측에는), 깔테론은 가족의 해체가 혼인신고 미비나(미혼모의 경우) 종교적·시민적 의무에 대한 끔찍한 망각에서(이혼의 경우) 비롯된다고 확언하고 있다.

가족경제를 위한 전국협정(Acuerdo Nacional en Favor de la Economía Familiar)을 통해 수백 만 가족에게 혜택을 주려는 몽상에 대해서 나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이 협정에는 추진자 외에는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깔테론과 (비난받을 정도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PAN을 제외하고 전문가들은 장밋빛 전망 낱말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실제로 이 협정은 아직 공약 수준에 그치고 있다. “2년 전 약속한 그대로입니다.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제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나는 법이라면, 의당 의료보험도 가지고 태어나야 합니다” 라는 식의 비유만 늘어놓았을 뿐이다.

우파인 PAN은 과나후아또, 바하칼리포르니아, 께레따로에서 낙태가 허용되던 경우들 모두를 금지시켰으며, 지금은 할리스꼬에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동거나 동성애자들 간의 혼인도 규탄하고, 모든 형태의 안락사에 (베를루스코니 식으로) 반대하고, 특정 영화들의 상영을 금지하려 하며(가령, <아마로 신부의 범죄> 같은 영화), PAN에게 투표하라는 교구신부들의 강론에 도움을 받는다. 그들은 세속국가를 싫어하며, 세속주의를 맹공하면서 바티칸의 생각을 철두철미 따르고 있는 것이다.

(김윤경 번역)